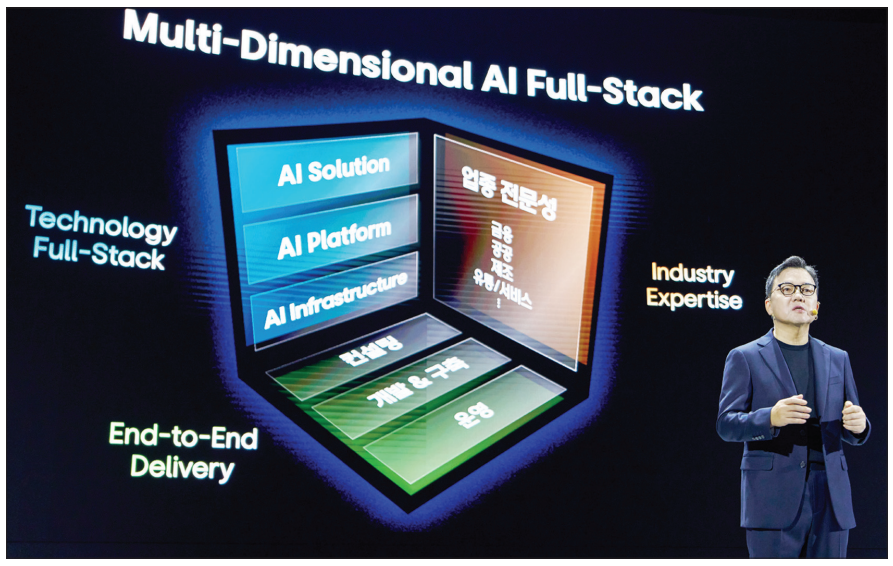
‘AI 풀스택 전환’ 나선 삼성SDS, 10조 들여 IT 체질 개선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㊳ 삼성SDS

2031년까지 AI 인프라 등 10조 투입
KKR과 협력해 인수합병도 추진
국가·기업 AI 인프라 구축 주도
우정항공 인수, 항공 화물사업 진출



삼성SDS 이준희 대표이사(사장)이 지난 9월 8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엔터프라이즈 AX 콘퍼런스 ‘리얼 서밋 2026’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가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인수합병(M&A)와 설비 투자에 신중하던 경영 기조를 탈피하고, IT 서비스·물류 중심에서 ‘AI 풀스택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현금 풀고 10조 투자…글로벌 AI 풀스택 기업 도약

삼성SDS은 글로벌 AI 풀스택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AI 풀스택 사업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클라우드 또는 AI 플랫폼으로 제공해 기업의 인공지능전환(AX) 지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가장 큰 강점은 현금 창출력이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재원을 축적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은 약 7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중장기 현금 활용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동안 인수합병(M&A)과 설비투자(CAPEX)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사업 영역 확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조원이다. 2031년까지 AI 인프라(5조)와 글로벌 M&A(4조), AX 플랫폼 서비스(1조)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비중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냉각 장치, 최상위 GPU 확보에 집중됐으며, 그룹 내 AI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해 건립하는 구미 AI 데이터센터에만 4273억원이 투입된다.

인수 합병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대형 IT 서비스 기업 투자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1조22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신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M&A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6년간 KKR과 투자 대상 발굴부터 자본 배분, 글로벌 사업 확장까지 추진한다.

◆국가·기업 AI 인프라 구축 주도…공공시장 복귀 6년 만

삼성SDS는 정부 주도로 전남 해남군에 구축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을 총괄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삼성SDS의 지분율은 30%로 가장 높다.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가동된다.

한때 삼성SDS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었다. 2013년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들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면서다. 당시 LG CNS와 SK C&C(현 SK AX) 등 SI 기업이 국방, 안보와 같이 예외를 둔 사업에서 수주를 지속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그러다 2019년 이후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규제 완화 등을 계기로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다시 진입했다. 독자 브랜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무기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해 대외 사업을 넓혀가고 그룹사 내부 거래 비중을 점차 낮추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제조 로봇 전환(RX)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삼성이 약 6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SDS는 이달 착공한 구미 AI 데이터센터가 그룹의 피지컬 AI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외부 기업을 유치해 대외 매출 비용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도 초기 60㎿에서 최대 120㎿로 확대한다.

◆IT서비스에서 AI로 체질 개선…물류는 디지털화로 경쟁력 강화

삼성SDS 매출 구조에서 물류는 여전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2% 안팎으로 낮아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항공 화물 사업에 직진출해 글로벌 항공물류 역량을 확보한다.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우정항공 지분 100%을 인수했다. 여기에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연결해 데이터 기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X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기존 IT 시스템 구축 중심의 사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AI 풀스택 사업을 기업 고객에 다층적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연산 자원 분야에서는 올해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기반 서비스형 GPU(GPUaaS)를 정식 출시했다. 또한 기업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브리티웍스 코워크’부터 제조 현장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까지 AI 인프라와 플랫폼,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지난 9월 열린 ‘리얼 서밋’에서 다차원 AI 풀스택 전략을 발표하며 “진정한 AI 풀스택은 기업의 AX 실행을 돕기 위한 컨설팅은 물론 개발과 구축,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기업 AX 도입 ‘길잡이 플랫폼’ 출시

간단한 문답으로 AX 도입 현황 진단
산업·업무별 AX 전략·솔루션 제공

#.제조기업 B사는 견적서와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마다 업무 절차와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자동화할 업무를 선별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 컨설팅을 받자니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KT가 기업 고객들의 이같은 고민을 덜어줄 업무 자동화 지원 플랫폼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전환(AX) 도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5일 KT는 AX 전문 플랫폼 ‘KT AX 비즈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AX 전략 수립부터 솔루션 검토, 도입 사례 확인, 전문가 상담까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의 관심 분야에 따라 ▲산업별 AX 전략·솔루션 ▲업무 과제별 솔루션 ▲탐색·파일럿·확산·최적화 등 단계별 추진 전략 ▲KT AX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기업 고객은 자사 업무 환경과 비즈니스 과제에 적합한 솔루션과 실제 도입 사례를 확인해 AX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AX 솔루션 컨설턴트’ 기능을 통해 간단한 문답만으로 기업의 AX 현황을 진단하고, 비즈니스 과제에 적합한 솔루션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준, 업무 혁신 수요 등 총 6개의 항목에 답하면, 짧은 시간 안에 리포트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아울러 토큰팩토리를 비롯해 에이전틱 On, NPU LLM 스테이션 등 KT의 주요 AX 상품과 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은 AX 전략 수립부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AI 에이전트 적용,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파트너사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KT는 실제 실행과 확산까지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지속 고도화해 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부산불꽃축제 대비 통신 대책 가동

AI 관제로 품질 사수

SK텔레콤은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통신 품질 안정화를 위한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에는 관람 인파만 12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체감품질 만족률’ 지표를 더했다. 행사 지역과 서비스 유형별로 품질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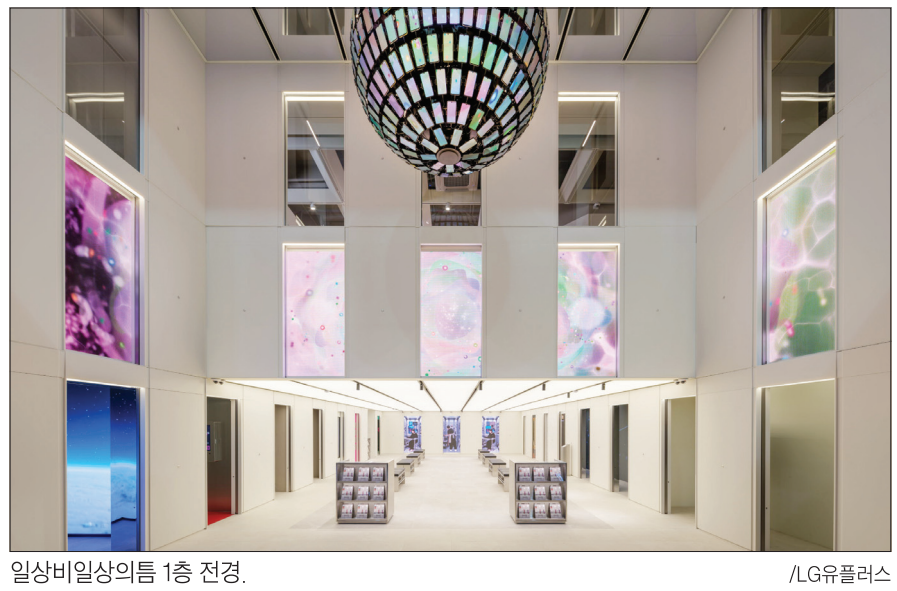
체감품질 만족률을 통해 서비스 이용 중 기준 품질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알 수 있다. 데이터 손실이나 전송 지연 없이 웹페이지와 콘텐츠가 원활하게 전달되는지 등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최고속도 중심의 기존 품질 관리 방식을 보완해 실제 사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외 정부와 주요 통신사들도 최근 유사한 방향으로 품질 평가 기준을 바꾸는 추세다.

또한 유형별 품질 차이를 가려낼 수 있다.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트래픽 특성에 따라 웹·SNS·비즈니스 협업·고화질 스트리밍 등 4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다.

분석 해상도도 높아졌다. 품질 저하가 발생한 지점을 격자 단위 GPS 좌표로 분석해 문제 구간을 정확히 짚어낸다. 또 AI가 위치 데이터로 KTX·지하철 이동 여부 및 거주 여부 등을 구분해, 고객이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상황(TPO)별로 품질을 살펴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체 개발한 무선망 AI 운용 시스템 ‘에이-원’에서 예상 운집 인원과 과거 트래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용량을 미리 산출하고, 코어망 AI 통합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로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행사 당일에는 AI 기반 실시간 부하 분산 제어도 적용해, 혼잡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민선 기자


일상비일상의틈 1층 전경. /LG유플러스

LGU+, ‘틈’ 방문객 체류시간 2배 증가

전시 관람하고 창작 활동

LG유플러스의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이 고객이 머물고 참여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의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이 재단장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방문객들은 평균 1시간 11분 가량 머물렀는데, 이는 기존 체류시간(30분)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전시를 관람한 뒤에는 지하에 있는 라운지에서 쉬거나 창작 활동을 하며 길게는 4시간까지 머무는 방문객도 있었다.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재방문 및 추천 의향을 나타내는 고객추천지수(NPS)는 오픈 후 한 달간 94.95점을 기록하며 기존 대비 40점 이상 상승했다. 현장에선 “공간이 좋아 가족과 다시 찾았다”, “친구 추천으로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리뉴얼 이후 틈을 찾는 고객도 다양해졌다. 기존 젠지(Gen Z)세대 중심에서 미술 전공생과 예술 애호가뿐 아니라 어린이 동반 가족, 50대 이상 중장년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의날인 지난 달 17일에는 방문객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관람-참여-발견-창작’으로 이어지는 공간 경험의 변화가 체류시간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은 AI 아트 메이트를 통해 자신의 감상 스타일에 맞는 해설을 듣고 참여형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심 작품을 태그하면 ‘아트 리포트’를 최종 출력해 자신의 예술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 후에는 유플러스 라운지에서 서로 감상을 나누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틈을 통해 사람들을 예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잇는 또 다른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